

권두언

미국 칼빈 칼리지에서의 경험

오랜만입니다. 안식년을 보내고 돌아온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 마음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듯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위원으로, 또다시 7-8개 회의에 불려 다니는 신세가 된 걸 보니 돌아오긴 돌아온 모양입니다. 2002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미국 미시간 그랜드 래피즈에 있는 칼빈 칼리지(Calvin College)에서 가르치는 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칼빈 칼리지는 네덜란드 이민 출신들이 19세기 중반 미시간 주 그랜드 래피즈에 세운 대학으로 학생은 4000여명, 교수가 약 300여명 되는 그렇게 작지도, 크지도 않은 기독교 대학입니다. 미국 중서부 ‘학부 중심 종합 대학’ (comprehensive colleges) 109개교 가운데 해마다 늘 2-3위를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쳐진 대학은 아닙니다. 학생 만족도나 학생 대 교수 비율, 취직, 재정, 교수 연구 등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곳에 체류하는 동안 저는 다섯 과목, 모두 합해서 250여 시간 강의를 하였습니다. 80년대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 전임강사 시절 화란어와 영어로 1년간 강의한 경험이 있긴 하지만 유럽에서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미국에서 영어로 강의한다는 게 제가 생각해도 좀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첫 학기에는 세 과목을 가르치고 다음 학기에 한 과목, 그리고 다시 한 과목이었기 때문에 첫 학기를 제외하고는 좀 한가하게 읽고 싶었던 책을 읽을 틈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중국철학 시간에는 <논어>, <목자>, <맹자>, <도덕경>, <장자> 등 중국 고전을 다루고 철학 입문 시간에는 주로 플라톤, 어거스틴,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칸트를 다루었습니다. 저로서는 철학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듯한 경험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으로 몇 가지 심각한 반성을 해 본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교수가 사용하는 시간이 우리가 통상 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아예 수업을 이틀간 전폐하고 교수와 학생이 자신의 삶과 공부에 관해서 상담하는 시간이 매 학기 한 차례 있는가 하면 수시로 학생들이 연구실을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은 반드시 반쯤 열어두고 있습니다. 수시 테스트,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보고서 등 모든 테스트를 채점하고 일일이 논평해서 되돌려주는 일도 힘과 시간을 상당히 빼앗아 갔습니다. 학생 편에서 볼 땐 여간 도움 되는 일이 아니겠지요. 채점하고 논평하는 일을 옆에서 본 제 아내가 “진작 그렇게 한국에서 했더라면 명교수 이름이 났을 텐데...” 라고 하더군요. 다시 돌아와 학생들이 낸 리포트에 일일이 논평을 달아주느라 혼이 났습니다. 미국 학생들에게는 논평을 일일이 해 주고 한국 학생들은 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렇게 하기 시작했더니 지금도 쇼핑 백 하나 읽어야 할 리포트가 가득 쌓이고 말았습니다.

칼빈 칼리지의 강점은 역시 기독교적 관점과 사고를 각 분야마다 잘 가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기독교 대학이 아니라 ‘분명히 차별화된’ (distinctively) 기독교 대학이 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여기 저기 보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노력은 아마 신임 교수 세미나가 아닐까 합니다. 대학 교수 생활을 다른 대학에서 2-30년 한 교수조차도 칼빈에 처음

부임한 교수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개혁신학의 역사와 신학, 신앙과 학문의 관계, 기독교 세계관과 인문학, 사회과학, 공학, 자연과학의 관계 등을 하루 세 시간씩 3주간 집중 세미나를 가집니다. 그리고 교수의 계약 단계마다 자신의 전공과 기독교 신앙의 관련에 대한 성찰을 하게 합니다. 기독교 대학이 기독교 대학답게 되려면 역시 교수가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사람 사는 곳 어디나 그렇듯이 모두 다 훌륭한 교수, 모두 다 본받을만한 기독교 학자가 모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탁월한 대학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칼빈 칼리지는 학부 중심 대학이라 가르치는 일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우리보다 훨씬 많지만 교수들의 연구 실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6-7년이 지난 뒤 정년 보장이 되면 교수들의 연구 실적은 조금 저조해지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 연구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지만 이런 외적인 것보다 학자 한 사람마다 철저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이 저에게는 크게 자극이 되었습니다. 비록 한국어로 썼지만 제가 쓴 책이나 논문은 철학과 어느 교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한 두 문제에 집중해 집요하게 그 문제를 잡고 흔들고 어떤 대안을 내 놓고자 노력했는가 물어보면 그렇지 못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몇몇 시니어 교수들은 각각 자신의 한 고유 분야와 고유 문제에 대한 풀이를 마치 자신의 고유 상표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 보면 저의 공부가 많은 문제와 많은 철학자들을 다루었지만 너무 허술했다는 생각입니다.

가르치는 일 외에 제가 칼빈에서 기대한 것은 최근 20-30년간 미국에서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된 기독교 철학의 연구 상태를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듯 칼빈은 1960년 대 이후 플랜틴가와 월터스토프 중심으로 기독교철학을 키워낸 센터였습니다. 이들의 업적에 대해서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철학을 키워내는 데는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무엇보다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플랜틴가와 월터스토프가 칼빈에서 교육받던 시절 해리 젤르마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분은 카이퍼리안(Kuyperian)이었지만 도여베르트 철학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에반 라너가 칼빈에 온 후로는 상당한 긴장 관계가 지속된 일은 전설처럼 칼빈 철학과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에반 라너는 결국 그의 제자들과 함께 토론토에 기독교학문연구소(ICS)를 세웠지요. 칼빈의 철학과는 기독교 철학을 표방하면서도 분석철학적 방법을 주로 한 철학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젤르마 교수는 분석철학을 하는 교수가 아니었지만 그의 소크라테스적 문답식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엄청난 지적 도전이 되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체계를 세우는 선생보다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유도하는 선생이 훨씬 더 제자에게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플랜틴가나 월터스토프의 학문적 탁월성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투철하면서도 철학적 기량에서 미국 최고 철학자의 반열에 이들이 속한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대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하는 학문에 탁월성을 보이지 않고서 중간 정도의 연구 논문을 내는 것은 기독교 학문의 성과로서 큰 의미가 없음을 이들은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성과를 그대로 반복하거나 답습하는 것만이 한국에서 기독교 철학을 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분석철학적 전통에서 기독교 철학을 하는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대화 상대자가 훨씬 더 많고 어쩌면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할지 모릅니다.

세 번째, 칼빈 철학과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교수 토론회를 합니다. 저도

이 모임에서 세 번 발표를 했습니다. 논의가 매우 치열합니다. 대부분 칼빈 철학과 교수들의 글은 이 모임의 토론을 거쳐 나갑니다. 철학과 교수들의 ‘화요일 모임’은 칼빈에서도 유명합니다. 웨인 주립대학에 있던 플란틴가가 1963년 칼빈에 온 이후 이 모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60-70년대에는 주로 매주 플란틴가와 월터스토프의 논문이 토론 대상이었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그들의 학문적 생산성과 논문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작업 중인 논문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모임이 국내에서도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무시할 수 없는 요소는 퇴임 교수들, 특히 월터스토프와 플란틴가가 칼빈에 대해 보이는 관심입니다. 플란틴가는 80년대 초 노트르데임대학으로, 월터스토프는 80년대 말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거쳐 예일로 떠났음에도 방학 때마다 찾아와 젊은 교수들과 철학적 교류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칼빈이 이들을 계속 모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도 어떤 다른 학자들보다 칼빈의 후배 학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저는 월터스토프와 두 번, 플란틴가와 한번 길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에 들어선 나이이지만 철학적 문제를 생각하고 논의를 해 가는데는 매우 힘이 있고 치밀하였습니다. 이들의 격려가 젊은 학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학문의 전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칼빈에서 교육자로서, 학자로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기독교 학문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그 현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저의 세대가 해야 할 일이고 저도 한 부분을 담당해야 할 일임을 실감했습니다. 작은 디딤돌이라도 놓아두고 가야 다음 세대가 저를 밟고 지나가 더 큰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실을 치열하게 생각하되, 현실과 거리를 둘 필요를 갈수록 절감합니다. 읽고 또 읽어도 끝이 없는 글들을 앞에 두고, 생각하고 쓰고 싶은 여러 주제들 앞에서 이제는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학문’이 단지 구호가 아닌 현실로, 그것도 미국이 아닌 한국 땅에서 실현되자면 조금 앞서 이 일의 중요성을 깨닫은 사람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빕니다.

주 안에서 강영안 드림